

201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결과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201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지난 2011년 8월 21일(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3개교에서 실시하였다.
- 응시자는 전체 지원인원 8,795명 중 90.34%인 7,945명이 응시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서울 6,184명, 수원 312명, 부산 456명, 대구 331명, 광주 212명, 전주 165명, 대전 217명, 춘천 43명, 제주 25명이다. 결시자는 응시료 환불자 504명을 포함하여 850명이다. 수험생 중 시각장애인(약시)과 지체장애인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자는 24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확대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되었다.
- 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www.leet.or.kr)에 게재하였으며, 정답 이의신청 일정과 출제 기본방향 및 영역별 출제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I. 일반 개요

1. 시험 시간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09:00~10:20), 2교시 추리논증 영역(11:00~12:50), 3교시 논술 영역(14:00~16:0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2.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및 심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 신청 접수 : 2011. 8. 21(일) 17시 ~ 2011. 8. 24(수) 17시
 - 응시생에 한하여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이의 처리 기간 : 2011. 8. 25(목) ~ 2011. 9. 2(금)
- 최종 정답 발표 : 2011. 9. 7(수) 10시

3. 채점 및 성적 통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9월 20일(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의 경우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한다.

II. 출제의 기본방향

(1)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교양 과목 수준의 보편적인 개념과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도록 한다.

(3)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4)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III. 영역별 출제방향

1. 1교시: 언어이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언어이해 영역은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언어 소양과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통합적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사람이라면 대학에서의 전공과 상관없이 공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글들을 독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독해 및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 및 표현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지문을 선정·개발한다.
- 지문의 핵심 정보나 주요 세부 정보들을 파악하고,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종합하며, 주어진 단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 기본 독해 능력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문항을 활용하되, 평가 내용에 따라 참신한 문항을 개발하여 문항 유형이 고착되지 않도록 한다.
- 그래프나 도표 같은 비언어 자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복합적인 정보 해석 능력을 측정한다.

(2) 출제범위

언어이해 영역은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은 유형 및 주제의 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정확히 읽어 낼 뿐 아니라 글이 담고 있는 의미의 함축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지문의 소재를 구하되, 중요한 공적 가치를 지닌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언어이해 영역의 여러 평가 목표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지문의 성격을 다양화하였다.

이번 시험에서 지문 선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양 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범주들을 중심으로 지문을 선정하였다.

둘째, 각 학문 분야의 최신 이론이나 시의성 있는 문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제로 각 지문들을 구체화함으로써 평가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이 일반 지식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게 하였다.

셋째, 학제적 내용 분야와 각 주제들을 연계시킴으로써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최근의 학문 동향을 반영하여 지문 독해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내용 분야들이 법적 문제들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지문을 선정함으로써 법의 이론적·현실적 연관성을 폭넓게 사고하게 하였다.

(3) 지문 및 문항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총 35문항을 출제하였다. 이 중 ‘국어’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는 지문을 기반

으로 문항을 출제하였다. 지문을 활용하는 문항 세트는 지문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독해 능력을 평가하거나 특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국어’ 분야에서는 법학 계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면서도 그 뜻을 곧잘 혼동하여 사용하는 한자어들의 어휘 사용 맥락을 분별하게 하는 문항과 어의와 어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인문’ 분야에서는 사학과 철학 지문을 다루었다. 사학 지문에서는 향리의 행적을 다룬 『연조귀감(掾曹龜鑑)』의 서문을 다루면서 ‘서문’이라는 형식으로부터 원저작이 담고 있는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적 평가를 변별하게 하고 지문의 역사성을 고려한 상소문 쓰기에 적용해 보게 하였으며, 철학 지문에서는 역사적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시대의 최상위 가치 판단 근거가 되는 상위선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논의를 다루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객관성과 상대성에 관한 지문의 논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회’ 분야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법제사학, 법철학 지문을 다루었다. 정치학 지문에서는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설명하는 사회심리학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을 다루면서 이론이 현실 설명력을 갖기 위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지문에 근거하여 파악하게 하고 이와 함께 가상의 정치적 상황에 적용한 이론적 예측을 평가하게 하였다. 경제학 지문에서는 자본구조와 기업의 가치 간의 상관성을 평가하는 완전 자본 시장 이론과 불완전 자본 시장 이론을 제시하여 이론들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기업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며, 교육학 지문에서는 근접 발달 영역과 협동적 상호작용을 주요 개념으로 삼는 비고츠키 교육 이론을 다루면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제사학 지문에서는 해방 후 헌법위원회를 제헌 헌법에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위헌 법률의 판단 주체를 놓고 삼권 분립 문제를 고심했던 과정을 다루면서 조문에 담긴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지를 물었으며, 법철학 지문에서는 분석법학을 다루면서 폐쇄적 법체계와 개방적 법체계의 법 논리가 어떤 가치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물리학과 생물학 지문을 다루었다. 물리학 지문에서는 자기 열량 효과를 활용한 자기 냉각 기술에 대해 다루면서 지문에 제시된 자기 물질의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개념 관계를 고려하여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생물학 지문에서는 내장 지방세포와 둔부 및 대퇴부 지방세포를 중심으로 지방의 저장과 분해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 및 호르몬의 관계를 다루면서 그 기전과 작용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며 적용 사례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문학·예술’ 분야에서는 문학과 예술 지문을 다루었다. 문학에서는 한국 현대 소설 작품으로서 박영환의 「지상의 방 한 칸」을 선정하여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와 작중 상황을 추리하도록 하였으며, 예술에서는 근대 멜로드라마 영화를 소재로 삼아 멜로드라마의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떤 장르적 특성이 형성되고 어떤 양식적 가능성이 모색되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4) 난이도

2012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지문과 문항의 난이도를 2011학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전체 지문에서 익숙한 내용과 낯선 내용이 고루 갖추어지게 하였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과 비교적 평이한 지문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성격의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낯설거나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라 하더라도 특정 전공의 배경 지식이 유리한 변인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5) 문항 출제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언어이해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주로 통합적 이해력과 심층 분석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문 분량에 융통성을 두었다. 다소 어려운 지문의 경우 분석적 이해를 주로 평가할 때에는 지문 분량을 늘리고, 추론 능력을 주로 평가할 때에는 지문 분량을 줄였다. 비교적 쉬운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의 분량을 늘렸다.

- 선지식에 의해 풀게 되거나 전공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해지는 지문의 선택과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문두의 선택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문항 및 답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답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2교시: 추리논증 영역

(1) 출제의 기본방향

추리논증 영역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제재를 찾아 가공하되, 대학에서 정상적인 학업과 평소의 독서를 통하여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공 분야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대학 전공 이상 수준의 전문 지식이 문항의 접근과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사실 관계의 추리를 요구하는 언어 추리 문항, 언어적 지리 정보를 구상화하도록 요구하는 수리 추리 문항 등을 포함하여 추리 문항을 다양화하였고, 제재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사고력을 통해서 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력 측정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수험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 관련의 다양한 제재를 사용한 문항을 다수 포함시키되, 법학 관련 제재의 접근성을 높여서 전공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한다.
- 법적 추리를 다루는 문항을 다양화하여, 사실 관계를 추리하거나 그러한 제재를 분석하는 문항을 포함시킨다.
- 수리추리의 경우 전공 지식의 차이가 문항 접근성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도록 계산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정보로부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내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되도록 한다.

(2) 출제범위 및 문항 특징

추리논증 영역의 출제 범위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모든 이론적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적·도덕적 논변, 법적 논변 등의 실천적인 분야까지 포함시켰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법 관련 제재를 다수 포함시켰다.

특히 법적 추리 능력의 이론적 기초를 다루는 법철학적 제재 (1번과 2번), 법적 추리의 현실에서 비중이 큰 사실 관계 추리를 묻는 문항 (3번과 4번),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논쟁과 민주주의와 환경을 둘러싼 논쟁 등 실천 윤리적 문제를 제재로 한 논쟁 분석 문항 (9번과 10번), 지리 정보와 지도 분석/구성을 연결시키는 추리 문제 (12번과 35번),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소재로 엄밀한 연역 추리 능력을 묻는 문항 (29번과 31번), 경제학의 제재를 이용한 그래프 분석/추리 문항 (33번과 34번) 등, 문항의 제재와 유형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였다.

(3) 난이도

2012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문항의 난이도를 2011학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하였다. 대학 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문항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나치게 복잡한 고난도의 문제를 피하였다. 특히 단기간에 습득된 요령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학에서의 학업과 독서를 통하여 얻은 논리적 사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3. 3교시: 논술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논술 영역에서는 미래의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분석적,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법률가에게는 합리적 판단을 위한 법적 추론의 능력과 그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논술 영역에서는 이런 점들을 검증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의 텍스트를 제시하여 지문이나 사례에 대한 해석 능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한된 시간과 지면 안에 자신의 구상대로 언어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출제 범위

법학적성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인문·사회 분야의 제시문을 선별 하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3) 문 항

201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은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번 문항은 ‘논증 분석·추론’ 유형으로서, 고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연설문을 활용하여, 수험생들의 내용분석 및 종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연설체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아테네의 동맹국이던 미틸레네의 반란을 진압한 뒤 여기에 대한 처리를 놓고 이루어진 두 사람의 연설문이 제시문으로 제시 되었다. 수험생들은 이 연설문 가운데 내제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들을 찾아내고 평가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실제로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2번 문항은 ‘적용·발전’ 유형으로서, 도시의 재편을 둘러싸고 빈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고 제시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보기>의 사례를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은 각각 낙후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적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관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재편이 자본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전제에서 도시사회운동을 지지하는 관점, 도시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참여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수험생은 이러한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보기> 사례의 도시의 문제상황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제시해야 한다.

(4) 난이도

2012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2011학년도와 비슷하게 난이도를 유지하였다. 법학에 대한 선지식이 답안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응시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변별력을 가지도록 문항을 출제하였다.

(5) 문항 출제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문제 유형과 답안 분량을 고려하여 1, 2번 문항의 배점을 각각 45점, 55점으로 차등 배분하였다.
-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두와 조건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 제시문은 외국어 원문인 경우 출제 의도를 좀 더 잘 구현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운문·재구성하였다.